

5개월 남았는데...국정화 정국에 선거구획정·선거 룰 확정 안되고 신당 변수까지 깜깜이 총선 ... 입지자들 '우왕좌왕'

**‘선부른 판단에 정치인생 바뀔라’ 사무실 못내고 몸사리기
뚝 끊긴 포럼·연구소 활동... 정치 신인들도 찾기 어려워**

4·13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정세가 과거 선거때와는 달리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선거운위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역사교과서 논란에 빨려들면서 선거구 획정과 공천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당 창당도 변수가 많다 보니 내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은 ‘뒤흔 행보’보다는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한 물밑 행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까지 갖가지 ‘정치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판에 얼굴을 새롭게 내미는 입지자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와 지역 행사 등에 얼굴을 내밀며 인지도를 올리는 데 주력할 뿐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포럼과 연구소 형태의 조직을 띄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선거일 전 120일(12월 15일)부터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들은 지역 내 경제와 사회 문제 등을 다루는 포럼과 연구소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활동 반경을 늘리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총선을 등이 확정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에서 정치 신인들 사이에 선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좀 더 두고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특히 호남발 신당 창당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자칫 선부른 판단을 할 경우 자신의 ‘정치 인생’을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출마 예정자들 상당수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와 놓고 우왕

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총선 50일 전후로 예상되는 공천 경선을 앞두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4~5개월 밖에 되지 않아 더욱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사무실 개소를 무기한 연기하는 입지자들도 상당수다.

광주 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오지동은

북구 갑에 편입되느냐에 따라 사무실을 양산동 또는 운암동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민들과 접촉면을 늘려가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출마예정자는 “공천 경선까지 불과 5개월여 남짓 남았는데,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능 D-6 “졸면 안 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5일 광주대성고고 수험생들이 교실 밖 복도에서 시간·체력이라는 벽을 넘어 대학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7.6배

<2217만8천㎡>

75%가 10년 이상 개발 안 돼

2020년 일몰제 댄 난개발 우려

광주에서 도로와 공원등 개발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75% 이상은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8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난개발 방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아

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면적이 2217만8천㎡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 간 미집행 상태인 토지 면적만은 1680만평으로 전체의 75.7%에 이른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1153만8000여㎡(52.0%)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도로 824만1000㎡(37.2%), 녹지 145만9000여㎡(6.6%) 등 순이다. 미집행 토지에 대한 매입 등 개발에 필

요한 사업비는 모두 8조5388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시가 최근 3년 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라 보상한 면적은 8필지, 1083㎡에 8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해는 72㎡에 6600만원,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야 하는 일몰제가 시행돼 지금 상황으론 난개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시장·도지사 입장 차이가 ‘허성관 버티기’ 빌미 제공

<광주전남연구원장>

이사들은 ‘사퇴’에 무게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허성관 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허 원장 임명 강행 파문과 관련,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입장 차이가 갈등을 더 키웠다는 점에서 시·도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연구원 이사회 회의에는 허 원장 임명 동의안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 4일 사퇴한 김수삼 전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허 원장을 임명할 당시 일부 이사들은 ‘임명 반대’ 여론이 큰 만큼 공식 이사회를 통해 임명 여부를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이사장 등은 이미 이사회에서 허 원장을 후보자로 결정한 만큼 별도의 의결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접점이 뒤틀렸다.

이와 관련, 4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광주시 추천 이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이사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여부를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남도 추천 몫 이사 중에서는 문병호 호남미래포럼 운영위원장만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이사는 “이사회 분위기가 허 원장 임명여부를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광주시 추천 이사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임명여부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사회 투표가 다시 이뤄지면 최악의 경우 임명 무효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데다, 광주시와 전남도 추천 선임직 이사들 간 갈등을 비롯한 법적 공방까지 우려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상생의제 1호인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이 더이상 표류하기 전에 시장과 도지사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연구원장실에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통합 당시 연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조례를 마련하긴 했지만, 이러한 원칙을 앞세우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불간섭 원칙도 이미 무너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원장 임명에 대해 이미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낙연 전남지사는 허 원장을 두둔하고 사태 장기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일부에서 받기도 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의 입장 차이가 사실상 갈등을 더욱 키우고 원장 임명 논란을 장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경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광역단체장의 간섭을 배제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실상 광역단체장의 ‘촉진 인사 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는 경우가 다르다. 지역이 원장 임명을 놓고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천초 칠새 분변 악취에 ‘공공’ ▶6면



신 팔도유람 ‘三樂島’ 제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세계자연유산 제주명품 특산물전

일시 2015년 11월 7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제주종합경기장 광장

전시·판매 품목 제주1차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 2차 가공품

주최 (주)제주일보

문의 (주)제주일보 총무국 ☎740-6444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대정농협	제주어류양식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제주시산림조합임산물유통센터	(주)제키스	(주)에버그린	제주생협
길갈축산	제주과랑	(주)푸른제주	영농조합법인후래시제주	우도명품각력리낙화곡주
제주천년약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제주공산업			